



“시골생활 5년만에 버섯박사 다 됐어요”

■ 해남 마산면 대상마을 문형귀·안점희씨 부부

25가구 50여 명의 주민이 용기증기 모여 사는 해남군 마산면 대상마을.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이 마을에서 60대는 청년층에 속한다.

그런데 유독 젊은 부부가 눈에 띈다. 바로 문형귀(42)·안점희(여·42)씨 부부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3년 광주 생활을 접고 해남으로 내려왔다. 대학졸업 후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하던 이들 부부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전원생활을 결심했다고 한다.

문씨는 “당시 7살, 4살짜리 아들 두 명을 어머니 집에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했다”면서 “어느 날 문득, 자식도 못 돌보는 이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니”며 전원생활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원생활을 결심한 문씨 부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장소를 물색한 끝에 문씨의 고향인 해남에 새 동지를 틀기로 했다. 이들 부부는 먼저 10여 년간 다니던 회사에 과감하게 사표를 제출했다.

2003년 광주생활 접고 고향에 보금자리

재배 버섯 급식용 전량 납품…연1억 매출

자녀들은 교회서 무료로 예능교육 받아

이른다.

문씨는 버섯 재배 2년째에 그토록 원했던 딸 하린(3)양도 낳았다. 하린은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버섯 재배가 대박이 나자, 문씨는 딸의 이름을 딴 하린버섯 영농조합도 세웠다. 문씨가 재배한 느티리 버섯은 급식 납품용으로 전량 농협하나로마트에 납품될 정도로 큰 인기다. 버섯으로 농사 감각을 익힌 문씨는 요즘 1천 400평 규모의 참다래 재배에도 도전 중이다.

전원생활에 성공한 문씨 부부는 자녀 교육에도 만족이다.

두 아들이 다니는 집에서 2km 거리에 있는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는 지난해 제 3회 지방교육 혁신 경진대회에서 전남도교육청 대표로 출전, 장려상을 받은 명문 초교다.

지난 2003년 전교생 수가 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까지 몰렸던 용전초교는 창조적 학습을 강조하는 대안학교 방식으로 전환한 뒤 학생 수가 60명까지 늘어났다.



해남군 마산면 대상마을에서 5년째 전원생활에 폭 빠져 사는 문형귀(42)·안점희(여·42)씨 부부가 느티리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보니, 앞으로의 생활비의 문제가 됐다. 이에 문씨 부부는 조금 벌어 조금 쓰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부업 개념으로 버섯 재배를 계획했다.

보금자리는 문씨가 직접 꾸몄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문씨는 두 달여 만에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 주방 1개를 갖춘 17평짜리 조립식 집을 완성했다.

집이 완성되자, 버섯 재배 노하우 배우기 위해 나섰다. 버섯 농사의 달인을 찾아다니며, 고급기술을 둘에 익혔다. 새송이 버섯을 재배한 첫해엔 조보치곤 버섯 농사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주변의 칭찬에 자신감을 얻은 문씨는 해남군을 통해 버섯 재배 시설비 2천 400만 원을 지원받고, 자신의 서비스를 보태 자동화 시설을 갖춘 5천만 원짜리 버섯 재배 시설을 만들었다.

문씨는 새송이 버섯 재배 3년째인 지난해부터는 수익성이 더욱 뛰어난 느티리 버섯으로 전환했다. 현재 문씨가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액은 1억여 원, 순 수익만 5천만 원에

용전초교와 함께 문씨 부부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곳은 집 근처에 위치한 신기교회의 무료 공부방이다.

방과 후 시작되는 신기교회의 무료 공부방에선 플루트 등 악기를 활용한 음악수업을 비롯한 각종 체험학습, 영어·미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업이 끝나면 교회 버스를 이용해 아이들을 집 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것도 큰 장점.

아내 안씨는 “사실 전원생활 중에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도시보다 교육 여건은 더 좋은 것 같다”면서 “아이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지고, 학업 능력도 갈수록 향상돼 교육 문제만큼은 대 만족”이라며 활짝 웃었다.

안씨는 또 “전원생활을 꿈꾸는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학교 시설 등 자녀의 교육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기 맑고, 인심 좋은 해남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꿈”이라고 말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에어로빅·탈춤·영어 연극…‘맞춤형 방과후 수업’ 모범

■ 마산초등 용전분교는

문형귀(42)·안점희(여·42)씨 부부의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해남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 ‘땅끝마을’에서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지만, 명문초교로 꾹한다.

고정에 들어서면 운동장 한켠에 각종 농작물이 심어진 덧밭이 자리잡고 있고, 향나무와 플라타너스에 감싸인 2층짜리 교사(校舍)는 시골 학교의 따스함을 그대로 전해준다. 용전분교는 과학실·미술실

하나에 한 학년에 한 개씩 교실이 있는, 전교생 60명짜리 미니 학교다.

그래도 지금은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하지만 5년 전인 2003년 해도 전교생이 4명밖에 안돼 폐교 위기까지 몰렸던 학교다.

당시 교사와 학부모, 지역민들이 “학교를 없앨 수 없다”며 의기투합해 학교를 지켜냈다.

용전분교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맞춤형 방과후수업’.

이 수업은 에어로빅과 축구, 가야금, 바이올린, 사물놀이, 서예, 탈춤, 영어연극, 무용 등 도시 학교에서도 하기 힘든 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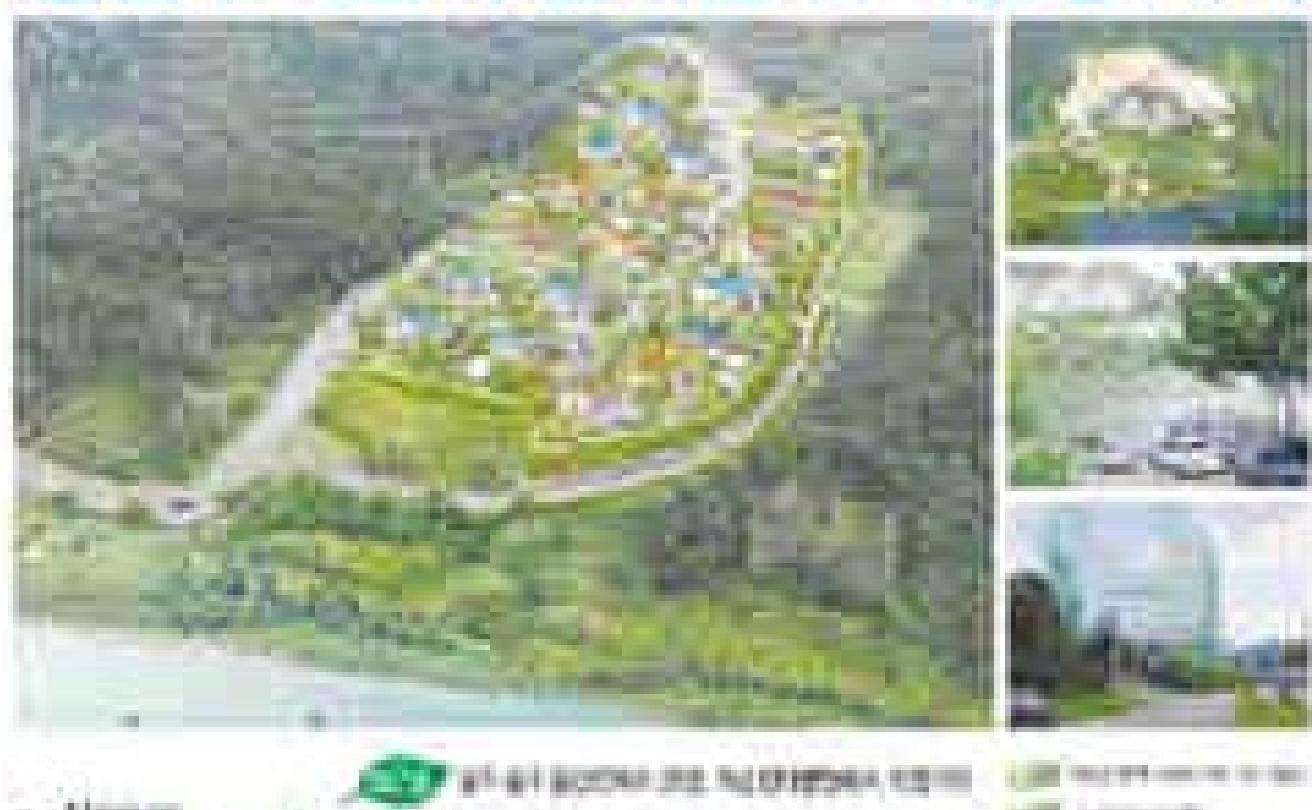
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음악과 축구 등 교사들이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가르치고, 에어로빅과 탈춤은 학부모들이 무료 강사로 나서고 있다.

또 5월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효도재 통산치’, 11월에는 ‘용전분교 새날 문화축제’를 열어 지역학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과후수업’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광주는 물론 멀리 경기도에서까지 전학 오는 학생이 생겨날 정도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푸른호수, 푸른숲 속 전원주택단지 선착순 본격분양 개시



아이에리시아

상물권 판매 물전체 각종 모임 및 행사 100차례, 500명 이상 참석

